



황강, 12기 성당위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 11차 회의서 강조

개혁정신으로 경영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추진하고 민영경제 고품질 발전 위해 량호한 조건 마련해야

호옥정 참석

3월 28일, 성당위 서기이며 성당위개혁전면심화위원회 주임인 황강은 12기 성당위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 11차 회의를 소집, 사회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민영기업좌담회에서의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중앙 8항 규정 정신 심입 관철 학습교양을 참답고 착실하게 전개하며 꾸준히 공을 들이고 끊임없이 힘을 들여 작품을 빠르게 하고 근본적인 것과 표면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며 개혁정신으로 경영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민영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량호한 조건을 마련하며 민영기업의 만족도로 학습교양의 성과를 검증해야 한다. 성당위 개혁전면심화위원회 부주임인 호옥정이 회의에 참석하여 사업요구를 제기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거듭 학습하고 거듭 맞추어보고 거듭 시달하는 것이 점차 심입됨에 따라 길림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려는 우리의 결심은 더욱 커졌고 신심은 더욱 강해졌으며 지력은 더욱 증분해졌다. 결심과 신심과 지력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의 과학적인 지도에서 온 것이고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 국무원의 정책적 지원에서 온 것이며 길림 인민의 소박함과 강인함 그리고 각급 간부들이 착실하게 실제적인 일을 하는 데서 온 것이고 길림의 량호한 사업 기반과 광범한 민영기업에서 온 것이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중앙이 6년 만에 재차 민영기업좌담회를 소집하고 습근평 총서기가 참석하여 중요 연설을 발표한 것은 '두가지 흔들림없이' (两个毫不动摇)를 견지하는 확고한 결심을 구현했으며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생력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기반으로서의 민영경제의 지위, 역할을 구현했다. 민영기업은 길림의 진흥발전을 위해 중대한 공헌을 하고 마땅히

회환하여 기업을 중시하고 봉사를 최우선으로 하는 질은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질강성의 '5통', '5판' 모식에 맞추어 디지털 개혁을 심화하고 '데이터 굴뚝'을 철거함으로써 진정으로 '원소통 온라인 정부봉사' 전제하의 '많아야 한번' (最多跑一次)을 실현해야 한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진지하게 학습하고 깊이 터득하고 예누리없이 실행하는 데서의 관건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일을 아무리 잘 배치해도 마지막에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틀림없이 형식주의와 관료주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종 결과인도를 견지하고 기업가 만족하는지 안하는지, 대중들이 기뻐하는지 안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4불2직' (四不两直) 감독검사와 비밀방문을 통해 사업이 폐쇄고리를 형성하고 실제적으로 실시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성당위개혁전면심화위원회 부주임인 호옥정이 회의에 참석하고 관련성 지도자, 성 직속 관련 부문 및 각시(주), 장백산보호개발구, 매하구시 책임자 동지, 길림성 주재 길림성 맞춤형협력사업조 조장이 회의에 열석했다. / 길림일보

연변주 2025년 봄철 대상 집중착공 활동 개최

호가북 착공 선포 흥경 연설

3월 30일, 연변주 당위와 정부는 2025년 연변주 봄철 대상 집중착공 활동을 개최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북이 룡정시탄소섬유고신기술산업단지 주 회장에서 활동에 참석함과 아울러 봄철 대상 집중착공을 선포했다. 주당위 부서기이며 주장인 흥경이 활동에 참가해 연설했다.

호가북은 3월은 대상건설의 좋은 시기이다. 호가북은 먼저 길림성국리야광장, 건강생태산업기지, 룡문양심객잔, 열림곡삼리조트, 해란명주탑 등 대상건설현장을 찾아 룡정시 봄철 신규 착공 대상 상황을 상세히 료해했다.

호가북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대상건설은 유요 투자를 늘리고 경제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엔진이며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발전 지력을 증강하는 중요한 버팀목이다. 당 주 각급 당위와 정부는 길림성 당위와 각급의 사업보고를 청취할 때 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과 전국 '량회'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 시달하고 길림성 당위와 정부의 배치요구에 따라 봄철 대상 집중착공 활동을 새로운 기점으로 삼아 무실력 행하는 투지와 꾸준히 공을 들이는 끈기를 발휘해 대상 유치, 착지, 건설 등 제반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대상건설의 탄탄한 성과로 연변의 도약 추위를 힘있게 지지해야 한다.

호경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대상건설의 황금기를 충분히 잘 리용해야 한다. 제반 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착공해야 할 신규 대상들이 모두 착공되고 지속건설 대상들이 전부 시공을 재개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의 최신 방향에 적극 접목해 중대한 기반시설, 전략성 신항산업, 도시 갱신 등 분야에 대상 총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대상 신정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며 민간투자의 활력을 전방위적으로 불러일으켜 유요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중점대상 추진전담팀 기제를 심화하고 전담 투기에 걸쳐 요소 보장을 잘하며 더욱 훌륭한 경영환경으로 더 많은 투자자들이 연변에 뿌리내리도록 흡인해야 한다. / 본지종합

매하신구 제 1회 인재대회 및 매하구시당위 인재사업회의 거행



3월 29일, 매하신구 제 1회 인재대회 및 매하구시당위 인재사업회의가 펼쳐졌다. 이번 대회는 '지혜를 모아 활력으로 넘치는 신규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창조하자'는 주제를 둘러싸고 인재대사(大使)와 인재싱크탱크 전문가들에게 증서를 발급하고 정부·학교·기업간 협력협의를 체결하였으며 여러차례의 좌담교류회, 투자유치 추천소개회와 전문초빙회 등 풍부한 행사를 개최했다.

매하신구당위개혁전면심화위원회 서기이며 매하구시당위 서기인 주환은 인재싱크탱크 전문가 대표들에게 초빙서를 수여하고 류철탁이 인재대사 대표들에게 초빙서를 발급했다. 절강대학당위 전임 부서기이며 절강중의약대학당위 전임 서기이며 국무원 정부특수수당 수혜자이며 길림성인재유치대사인 매하구 출신 역외 인재 장내대, 저명한 문화학자이며 청화대학, 북경대학, 중국인민대학의 객원교수이며 학술위원회 위원인 매하구 출신 역외 인재 리건신, 길림대학제 1병원 당위 부서기이며 원장인 류빈 등 인사들이 교류발언을 했다.

회의에서 매하구시인민정부는 길림농업대학, 길림예술학원, 길시미디어 주식유한회사, 길림대학제 1병원과 전면적 협력협의를 체결했다. 매하신구당위개혁전면심화위원회 서기이며 매하구시당위 서기인 주환은 인재싱크탱크 전문가 대표들에게 초빙서를 수여하고 류철탁이 인재대사 대표들에게 초빙서를 발급했다. 절강대학당위 전임 부서기이며 절강중의약대학당위 전임 서기이며 국무원 정부특수수당 수혜자이며 길림성인재유치대사인 매하구 출신 역외 인재 장내대, 저명한 문화학자이며 청화대학, 북경대학, 중국인민대학의 객원교수이며 학술위원회 위원인 매하구 출신 역외 인재 리건신, 길림대학제 1병원 당위 부서기이며 원장인 류빈 등 인사들이 교류발언을 했다.

업부(처)와 전면적 협력협의를 체결하고 매하신구인력자원사회보장국(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장춘직업기술대학과 전면적 협력협의를 체결했다. 길림농업대학, 중식세기그룹 유한회사, 매하구시중농농업발전유한회사, 매하구고신기술산업개발구 관리판공실은 청도해회덕전기유한회사와 과학기술 성과 전환 협력협의를 체결했다.

매하신구당위개혁전면심화위원회 서기이며 매하구시당위 서기인 주환은 "현재의 매하구는 전환 발전의 관건기에 처해있는바 그 어느 때보다도 혁신을 중시하고 있고 인재를 갈구하고 있다. 우리는 인재강시 전략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인재를 중심으로 사랑하고 정성껏 육성하고 끌어들이고 사용하는 신고지, 인재혁신의 우선지, 인재활력의 분출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매하신구 고품질 발전 좌담교류회 등 여러차례의 전문좌담교류회, 투자유치 추천소개회와 '직업유치의 미래는 바로 매하' 주제 전문초빙회도 개최되었다.

성 직속 부문 관련 책임자 동지, 대학교와 과학연구원(소)의 관련 전문가와 학자, 매하신구 인재싱크탱크 전문가와 인재대사, 매하구 출신 역외 인재, 제 5중학교 동문과 투자바이어, 매하신구와 매하구시 책임자, 신구(시) 직속 관련 부문, 향진(가두) 주요 책임자, 일부 중점기업과 인재 대표 등 약 450명이 회의에 참가했다.

유경봉기자 / 사진 매하신구(매하구시) 응매체센터

길림대학제 1병원, 전국 공립병원 상위 1% 진영에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023년도 전국 3급 공립병원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588개 3급 공립병원을 A, B, C, D 4개 등급으로 구분한 가운데 상위 1%를 A++ 등급으로 정했는데 전국에서 16개 병원이 이상인 매하구 출신 역외 인재 리건신, 길림대학제 1병원 당위 부서기이며 원장인 류빈 등 인사들이 교류발언을 했다.

고 개방 침대는 5,900여개, 재직 종업원은 9,800여명, 각급 고차원 인재는 40여명이다. 국가 임상 중점진료 문과가 30개, 국가급 플랫폼이 7개, 공공실험기술 플랫폼이 10개 있다.

2021년 이래 년평균 문진·응급진료 인수는 연인수로 543.2만여명, 년평균 수술 인수는 14.5만여명, 년평균 퇴원 환자수는 연인수로 29.5만여명이다. 루계로 신기술, 신치료법 480여개를 전개하고 국가급 프로젝트 200여개를 비준받았다.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간, 신장, 심장, 폐 이식 자질이 있는 병원으로서 장기 기증 총량은 1,100여건이고 이식 총량은 1,700여건으로 동북지역 1위, 전국 10위권에 들었다. / 길림일보

1985년—2025년 《길림신문》 창간 40주년 기념 특집 판면 3, 4, 5, 6면

